

城邑里 空間構成의 研究

金 鴻 植*

가. 序 論

1. 마을의 概要

역사 1423년(世宗 5년)에 현청이 자리잡은 고을로 設村되어 20세기초까지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

위치 제주도 동남쪽 중산간지대로서 해안에서 9km 거리에 있고 해발 125m 높이에 위치한다.

크기 성곽의 크기는 동서 약 160m×남북 약 140m, 약 3만평의 귀족인 벼모꼴로서 110戶가 자리잡고 있다. 성밖에도 많은 가옥이 있으나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세 마을은 지름이 대략 1,600m 크기의 평평한 분지에 자리잡으며 성곽은 이 가운데서도 약간 도드라진 듯한 곳에 위치한다. 특히 북쪽과

* 명지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서쪽은 평평하지만 안으로 혹은 밖으로 약간 경사져 수계를 이루는 곳에 축성하였으며 남쪽과 서쪽은 川尾川 쪽으로 기울어지는 개골(얕은 골짜기) 바로 앞으로 지나가게 설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성읍리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오래전에서부터 있어 왔다. 그 가운데 성읍리를 위주로 조사한 것은 金 榮 敦 교수의 「민속촌지정과 보존에 따른 지정대상촌락 개요 및 보존방향」 및 「민속자료 보호구역 조사보고서 제 5호-정의고을」(金 榮 敦, 문화재관리국)이 있고 그 뒤 필자가 조사한 「민속촌 지정보존대상지역 조사보고서」(金 鴻 植, 제주도, 1978)와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金 鴻 植, 제주도, 1978)와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金 鴻 植 1980)이 있다.

이 중 필자가 조사한 부분은 마을의 배치와 공간이용, 개개의 가옥에 대한 공간구성 구조 가족구성 등 주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었으며, 전자는 주로 개인가옥 위주로, 후자는 주로 마을공간 위주로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조사보고서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신지 않았다.

때문에 성읍리의 공간구성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의 구조를 밝히는 작업이 요구되었으며 제주도연구회의 월례발표회를 빌어 2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하나는 마을의 공간구성에 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가옥의 공간구성에 대한 것이었다. 차례에 이 둘의 글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한다.

성읍리마을은 우리나라 읍성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된 마을로서 이곳의 공간구조의 기본틀을 해독함으로써 제주도 주택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읍성의 계획정신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런 작업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통적 마을 공간구조방식을 찾아내서 새로운 마을 계

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마을의 공간구성

1. 풍수지리상의 해석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성읍마을의 산세는 서쪽에 있는 제주의 명산 한라산으로부터 성관악, 룡산, 성불악으로 맥이 이어져서 마을 북쪽산인 영주산에서 맺는다. 한편 마을 앞에 자리잡은 남산은 제주섬의 동북쪽에 위치한 개성악으로부터 맥이 이어져서 마을 동쪽을 감아돈다.

이 두 산줄기는 읍을 중심으로 감아돌며 그 사이를 盖老川이 흐르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약간 다른 듯 하다. 局안에 흐르고 있는 川尾川은 영주산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로서 영주산과 한라산의 맥은 끊어지고 오히려 동쪽에서 흘러들어 오는 맥상에 놓였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누구나 이곳에 오면 대동여지도처럼 해석하고 싶어진다. 다시 말해서 서북쪽에 자리해서 神將처럼 가끔 그 모습을 드러내는 (쾌청한 날에만 드러나는데 맑은 날은 연중 40일 정도) 한라산을 神山으로 삼고, 북쪽의 수려한 영주산을 鎮山으로, 南山峰을 案山으로 하고 싶다. 영주산이 나래를 펴면 西쪽은 모지오름, 따라버, 설오름, 갑선이오름으로 연결되는 右白虎가 되고 동쪽은 남산봉 밖으로 左靑龍이 연결된다.

形局 안에는 川尾川이 半月形으로 흐르고 그 半月의 안쪽에 마을이 자리잡으며 남산봉 남쪽으로 水口가 열린다.

局 바깥 남쪽에는 멀리 遠山峰이 자리잡아 朝山에 해당된다.

이 마을의 形局은 두가지로 이야기된다. 하나는 배수형으로 行舟形이고 둘은 將軍大座形이다. 行舟形은 우리나라 邑基에서 주로 쓰인다. 形局의 의미는 인물을 가득 싣고 막 떠나려고 묶어둔 배란 뜻으로서 이런 形의 땅에는 사람과 재화가 풍부하게 모이는 所應을 가졌다고 믿는

다. 이곳에는 배에서 가장 중요한 키나 돛대 및 닻을 갖춰야 길하다고 생각하며 이곳에 우물을 팠을 때는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난 것과 같다고 하여 흉하다고 믿는다(村山智順, 1927, 朝鮮의 風水, 京畿, 朝鮮總督府).

‘이 마을의 닻은 南山峰에 해당하며 키 또한 이곳 산자락에 자리하고 돛대는 마을의 老巨樹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고 전한다(마을노인 宋文俊씨 증언).

같은 이유로 마을 안에는 일체의 우물이 없으며 다만 봉천수에 의지한다(마을 중심에 예전에는 현감만 먹었다는 우물이 있으나 이 역시 봉천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마을의 상징적 뱃머리는 서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배의 교물은 南山峰쪽이 된다. 따라서 성곽의 동남지대는 낮으며 여름에는 한 두번정도 물에 잠기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도로가 계획되었고 주거지가 계획되지 않으며 농경지 혹은 射亭 등으로 이용한다. 같은 해석의 뜻으로서 瀛洲圖式 名山錄에 보면 島内 甲富文地라 하는데 재물에 해당하는 川尾川이 노적가리에 해당하는 南山峰을 밖으로 두고 흐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客地사람이 돈을 벌며 본토백이는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돈을 벌면 떠나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재물이 당대는 넘기기 어렵다고 전한다.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큰 내를 끼고 있을 때는 교통의 요지로서 예전에 배를 중심으로 교역하던 때에는 재물이 모이는 곳이다. 따라서 재물을 모은 갑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큰 내를 끼고 있으므로 항상 수해의 걱정이 있기 마련이며 재물이 모이는 곳이기에 항상 외적의 침입에 대한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때 안산인 남산이 수해때 피난처 구실을 해주기도 하고 외적의 침입때 방어상 유리한 지형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읍성의 대부분의 안산에는 나무를 심고 정자를 지어서 주민의 놀이마당 역할을 하도록 고려해야 된다. 말하자면 생활상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내를 건너서 멀리 떨어져 상징적 역할만을 한다면 치부한 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이

치이다. 주민들의 생활에서 정신적 통합기능을 잃기 때문이다. 필경 남산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水口를 막는 듯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장군대좌형은 장군이 거주앉아 있는 형상이란 뜻으로서 전후좌우 대칭형 지세를 말한다. 鎭山 모양이 좌우로 내려를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쪽으로도 놓여 있어서 방어상 대단히 유리한 분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라산의 맥이 서쪽으로 내려오다가 모지오름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영주산, 본지오름, 남산봉으로 연결되고 오른쪽에는 설오름, 갑선이오름, 아십선으로 연결되는 맥을 가져서 이것이 마치 장막처럼 성곽을 멀리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되면 形局의 축은 동서로 놓이게 된다.

마을의 宋文俊씨 말씀에 의하면 軍幕을 쳤던 형상이라 하며 마을안 東軒의 외대문 자리와 마을의 서쪽에 군막의 말뚝을 박은 돌이 있다고 전한다.

이 돌자리에 의해서 東軒자리가 將軍의 위치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또한 마을 남쪽의 능선인 갑선이오름에서 아십선이 까지는 능선의 맥이 약해서 산줄기가 있는 듯 마는 듯 하다. 더군다나 南쪽으로 표선리 옆에 있는 대봉이 등성이 너머로 보인다. 이것을 風水에서는 窺峯 곧 내다보는 봉우리라 하여 대단히 흉하게 여긴다. 이것을 막기위해 窺峯막이가 등성이에 커다란 성곽처럼 쌓아졌고 예전에는 이쪽에 허함을 막기위해 남문에 액막이인 거옥대를 만들어 뒀다고 한다(이 窺峯막이는 사또와 아전의 권력다툼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이것은 本論과 어긋나므로 실지 않는다). 앞서 인용한 瀛洲圖式에도 보면 丑艮卯得坤申破라 하여 북동쪽은 지세가 좋지만 남서쪽은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종합하면 장군이 마주보고 앉은 모양처럼 양쪽에서 큰 봉우리가 마주보고 각각 양날개를 드리워서 분지를 이루면 방어상 대단히 유리한 것이다.

여기에 중앙을 가로지르는 川이 굽이쳐 반달형으로 흐르는 곳은 지대가 평지이기 때문에 邑城을 설치하기에 좋은 곳이다. 더군다나 이 곳은

생수가 나지 않는 곳으로 굽이쳐 흐르는 물길은 좋은 물 저장고를 가진다(실지 이곳은 성인에서 2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이곳 川尾川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다)

일반적으로 반달형의 내를 가진 읍성인 경우에는 그 내를 성지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城廓자체가 적을 뿐만이 아니라 냇가 근처는 지대가 낮아서 마을 주거지를 삼기에는 부적당 했으리라 믿어진다. 또한 여기 개천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곧 바로 마르는 乾川으로서 방어상의 목적에도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필경 풍수사상이 이상으로 여겼던 읍기는 대략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좋은 곳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뽕밭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재화가 잘 모일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시되던 것은 수군의 유리함이다. 그러나 바로 바다를 끼고 있어서 왜구의 침입 가능성이 잦은 곳은 좋지 않다고 여긴 듯 하다. 이것은 원래 읍지였던 성산면 고성에서 이곳으로 옮긴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포구에서 적당한 위치에 상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설읍한 이래 한번도 전화를 입지 않았는지 모른다. 둘은 방어상 유리한 지형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는 들판이 넓었으므로 인위적 성곽을 쌓지만 우리의 경우는 험준한 자연적 조건을 잘 이용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산성이 많고 또한 산성 중심의 방위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읍성 중심의 방위계획은 임란이후에 짜여진다.

세째는 아무리 방어상 유리하다고 해도 경작지를 끼지 않은 산간에도 들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는 큰 마을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들판을 갖추 분지가 이에 해당한다.

네째는 음료수 문제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가장 곤란을 느낀게 음료수의 문제인데 生水가 한 곳도 없는 이곳에 마을이 자리잡은 것을 보면 음료수가 가장 경시되었던 요소로 보여진다.

2. 공간의 배치와 축

우리나라의 취락은 뒤쪽으로 산을 의지하고 앞으로 농경지를 바라보며 농경지와 마을 사이에 개천이나 도로가 가로 놓이는 게 일반적이거나 마을내부로의 안길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이용되는데 산간지대의 局이 열린 곳에서는 나뭇가지 방식(土)이 보통이고 평야지대에서는 활꼴방식이 널리 쓰인다. 그러나 제주지방에서는 산이 없는 넓은 들판에서 많이 쓰이는 둥근고리방식이 일반적이다.

한편, 읍성에서는 여러가지 방식이 쓰이지만 지리적 조건이 특수하지 않을 때는 보통 사람이 서 있는 것을 형상화한 우자 모양이 많이 이용된다.

성읍리의 경우는 위의 2가지 방식이 함께 쓰여진다. 성곽안은 우자 방식으로 되었고 바깥은 둥근고리방식이 중복된 것이다. 외부의 둥글게 설치된 도로는 성곽 바깥을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방으로 통하게 되었다. 즉 동으로 삼달리에, 서로 가시리에, 남으로 표선에, 북으로 성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성문을 걸어 잠겼을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리라 여겨진다. 사실 성내는 도시 기능을 만족키 보다는 방어상의 목적이 더 컸으며 상징적 형태구성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으로의 출입문이 시설되지 않고 밤에는 그나마의 4대문도 걸어 잠근다는 것은 장사를 주업으로 하는 도시인의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었을 것이다(지금 현재는 북쪽의 길이 뚫렸지만 20C 초까지도 북쪽의 통로가 막혀 있었다. 이 글은 19C의 상황을 다룬 것이다). 이것은 성안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거개는 아전들이라던가 관노등 관청에서 일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부농들의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마을을 계획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축의 설정이다. 풍수지리적으로 이 고을을 해석하면 行舟形이나 將軍大座形으로서 모두 서쪽을 머리(坐)로 해서 동으로 향하게 되었으며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

의 脈도 서쪽에서 入首하고 있다. 그러나 일년 중 대부분은 한라산을 볼 수 없고 영주산만이 빼어나 보인다. 또한 君子는 南面해서 政事를 본다는 유교적 논리를 볼 때 산줄기의 脈 따위나 따지는 풍수가의 陰術은 무시된 것으로 여겨진다. 필경 정사를 보는 官衙건물은 남면해서 마을의 주축은 子坐午向을 한다. 교육기관인 향교만은 서쪽에서 入首를 받아서 동향 하지만 동향의 副軸은 주도로 계획에서 무시된다. 읍성의 가장 보편적인 오자 모양 배치에 있어서 머리부분에는 행정관아 건물을, 심장부분에는 상징적 관아건물을 배치한다. 여기에서 머리가 동천이 되고 심장부분은 객사에 해당되며 향교는 허파위치가 된다. 다리쪽으로는 남대문을, 양팔쪽으로는 동서대문을 설치하고, 이들이 만나는 동천 앞 한 마당이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여 주며 상호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된다. 여기에 남문로는 객사를 향해서 곧아서 근엄하게 만들어지며 양 쪽으로 면대문(바깥 대문)을 갖는 부호들의 집과 중간쯤에 굶은 물통(연못)이 자리잡아 큰 골의 분위기를 잡았다. 객사 대문 앞에 이르면 남문거리의 끝나고 서쪽으로 꺾어져서 동천 외대문을 향해 곧고 큰 중앙거리가 놓인다. 이 거리끝이 공문동산이라는 시장이며 중앙의 동천 바깥 외대문을 중심으로 양쪽에 질청과 사령청 등 관아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선다.

동문거리와 서문거리는 곧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구부정하게 구부러져 미끄러 간다. 성곽 안에는 향교, 객사, 과상청, 예변청, 무학청, 도청, 조현청, 호적고, 현사, 옥, 군기고, 창방, 질청, 현아 등 많은 관청이 자리잡기 때문에 몇몇 부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가난한 사람의 집이 많다. 여기에는 민가만 해도 100호 이상이 들어 차 있기 때문에 순수한 경작지는 동남쪽의 수물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집안의 텃밭에 해당하는 우영 등의 공간에 마련될 뿐이다. 경작지는 성곽 바깥에 산재하는데 지형상 상습 수해 지대에 해당하는 서남쪽 지경에만 마련되지 않는다. 특히 서쪽과

북쪽은 성곽 멀리까지 경작지가 있고 민가들도 흩어져 분포하며 남쪽으로는 동구밖까지의 먼 경작지를 갖는다. 그러나 분지를 벗어나 산등성이에 올라가면 경작지가 없는데 이것은 농토가 박하기도 하지만 바람의 피해—해수도 문제이겠지만 특히 풀씨가 너무 날아와서 풀을 이기지 못한—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탓으로 본다. 성곽 북쪽에 부촌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지대가 높아 수해가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좋은 경작지가 위치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성곽 밖의 마을 배치는 제주 일반적 마을 배치방식인, 농경지 중심의 마을을 위해서 경작지와의 거리를 좁힌다는 기본적 배치방식이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읍성의 축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는—장군의 지휘소로 이용되는—倚斗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북쪽 성곽 상부에 배치하고 正남북선을 그어 맨 아래 남쪽 성곽위에 남대문이 자리잡는다. 또한 이 축은 내대문의 중심과 객사의 대문을 지나간다.

특히 객사대문은 성곽의 중심에 해당되어서 이 곳을 중심으로 원을 돌리면 3개 대문과 기두정에 일치된다. 다만 성곽이 귀족인 네모꼴이기 때문에 네 모퉁이가 밖으로 부풀어 동쪽은 약간 밖으로 남대문은 약간 안으로 들어온다.

객사대문에서 기두정까지의 꼭 3할 거리에 외대문이 자리잡고 노더리 방측은 내대문이 중심 밖으로 나간 만큼 안으로 들어와 자리잡는다. 객사대문에서 내대문 지붕위를 지나가는 원을 돌리면 동쪽으로 동문거리의 바깥 轉曲부분, 남쪽으로는 원남만 먹었다는 남문 문동을 지난다. 그러나 동대문과 서대문을 잇는 선은 남대문의 자오선과 직교하지 않아 정확히 동서 방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읍성의 기준적인 기두정에서 남북선을 중심으로 각각 동서 30°선을 긋고 남대문 위를 지나가는 동서 선과 만나는 점에서 수직선을 그어 올리면 동대문은 정확히 들어맞고 서대문은 약간 모자란다. 이런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뤄보면 성읍리는 철

저한 기하학적 계획에 의해 설계하되 지형에 따라 약간 변형 시공된 읍성이라는 결론을 얻게되며 정확한 측량에 의해 시공되었음을 알게 된다.

3. 道路(徑路)의 構成

성곽 밖으로 동근고리형 도로를 돌리고 안으로 우자 큰 도로를 연결한다.

여기에 활꼴 도로를 이어서 셋길을 만들고 이곳에서 만족치 못한 집들에는 막힌 길 수법인 올래를 두어서 해결한다. 이렇게 해서 마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집들이 배치된다. 길들은 모두 활처럼 휘지 않는 것이 없다. 모임의 장소는 대부분이 길들이 만나는 곳에 마련되며 여기에는 큰 나무가 있고 걸터 앉을 수 있는 편상이 시설된다. 이것은 제주에 대단히 발달한 것으로 대개는 돌로 나무주위에 둥글게 쌓아 앉기 좋게 회를 발랐다. 이것은 역시 동헌앞 나무그늘이 가장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며, 다음은 동문 앞이며, 노다리방죽과 기타 올래어귀 등은 몇몇 사람들이 가끔 이용하는 곳들이다. 출입구의 처리는 길에 면한 집은 짧은 올래방식을 써서 대부분 대문간을 두고 안채를 비끼며 길 안에 있는 집은 긴올래방식을 써서 대문간을 두지 않는다. 올래는 몇 사람이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각각 따로 자기의 올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짧은 올래는 집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형 주거에서 많이 쓰이고 긴 올래는 농촌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식인데 여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곳에는 짧은 올래를 가진 집이 비교적 많은 도시형 마을이다(물론 가난해서 올래다운것이 없는 집도 많다).

〈표 1〉 올 래

긴 올 래	짧은 올 래	기 타	계
29	25	31	91 戶

종합하면 성곽 밖으로 등근고리형 도로를 보내고 안에 우자 길을 낸 것은 성내에 필요없는 통과 교통은 성곽 안에 두지 않겠다는 계획의 지를 보인다.

또한 활형길과 막힌길 수법의 올래는 최근에 발표된 도시계획 기법인 <루프>와 <쿨드삭>의 정신과 일맥 상통한다. 길을 활처럼 구부러지게 처리한 것은 보는 사람이 진행해 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관을 보여주는 時空間기법이다. 이것은 山林經濟十居條에 當面直來之路 謂之 衝破心須盤今曲轉이라고 해서 길이 바르고 대문을 향해 오는 길은 나쁘며 반드시 구부러고 굴러야 된다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구부러진 길이 대문을 향해서 구부러져도 나쁘며 반드시 밖으로 구부러져야 좋다고 했다.

4. 건물의 배치

縣衙의 건물들은 정남쪽 축선에 맞춘게 아니고 15° 서쪽으로 돌려서 癸坐丁向으로 배치되었다. 건물은 일반적으로 남향한다는 생각과는 다른 것으로 건물의 坐向은 地形에 따름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정의읍성의 정남은 아심선이 언덕의 약간 서쪽등선이 이에 해당하고 트인 경관을 갖는 水口는 동쪽으로 15°~30°에 있다. 따라서 뒤에서 맥이 흘러들어 오는 入首와 트인 경관을 가진 水口에 축을 맞춘다면 오히려 동으로 기운 壬坐丙向을 하는 게 마땅한 자리다.

그러나 癸坐丙向을 해서 아심선이 봉우리 서쪽 둔덕을 바라보도록 배치했다.

필경 여기에서 옛 풍수가들이 집을 배치하는 방법을 알겠다. 건물의 배치는 坐로 대략의 방위를 결정하고 向으로 정확한 방위를 정한다. 案山은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좌우에 비껴두며 대개는 朝山의 8부 능선을 향한다. 아무리 빼어난 朝山이라도 정면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 안산이 水口를 가려주면 허한 데가 없어서 가장 좋은 집터로 치

는 것이다. 그러나 조산이 너무 높고 가까워서 집터에 위협하는 듯하면 멀리 水口쪽을 향해서 관계를 튼다. 여기 정의골은 朝山이 멀리 있어 그쪽을 향하는데 아십선이 둔덕 너머로 멀리 표선에 있는 매봉이 보인다. 이걸 막기위해 아십선이 둔덕 위에는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관아의 다른 건물, 동헌, 내대문, 외대문 모두 같은 축을 맞추고 있고 객사도 역시 같은 방위이다. 그러나 향교는 맥이 서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坐를 서로 하고 동으로 향하게 한다.

따라서 남산을 朝山으로 삼는데 남산이 약간 남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정동으로 향하지 않고 남으로 약간 기운 幸坐乙向을 하고있다. 일반적으로 명륜당과 대성경을 앞뒤로 놓는데 여기서는 거의 평지에 가까우므로 좌우로 배치해서 같은 향을 하고 있다. 민가의 평면은 한일자 집으로서 살림채가 안거리, 밖거리의 두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게 제주도의 일반적 특색이다. 이것은 평면구성만 다를 뿐 집의 구조방식에서 중부 지방을 제외한 태백산맥 서쪽의 일반적 배치방식이다. 배치방식은 살림채인 안거리와 밖거리가 두二자 모양으로 마주앉은 집과 튼 곱은자 모양으로 앉혀지는 모로 앉은 집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한라산 북부지방에서는 마주앉은 방식이 많지만 남쪽에서는 한라산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도 전체 가운데 반정도가 모로 앉은 집이고 마주앉은집이(28/91)% 적도이며 나머지는 외채(거리)집이다(표2참조).

안채의 방위는 정남쪽이 월등하게 많아서 거의 반에 해당하며 동남쪽과 동남남쪽 방위도 35%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동쪽과 서남남쪽이 약간있고 서남과 서쪽은 거의 없는셈이다. 마주앉은 집인경우 밖거리는 안채와 반대의 방위가 되므로—그러나 출입방향이 반대일 뿐 햇빛을 받는 방위는 같도록 평면계획을 한다—동쪽과 동남쪽이 약간 많다. 모로 앉은 집은밖거리의 방위가 안거리의 90°를 이루므로 여기에서 정남이나 정남쪽에 가까운 방향의 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모든 집(목거리를 통합)을 조감할 때 동서로

〈표 2〉 안채의 방위

	東	東南	사이	正南	사이	西南	西	계
마주 앉은 집	5	5	3	11	3	-	1	28
모로 앉은 집	1	4	11	22	5	2	-	45
기 타	1	5	4	7	1	-	-	18
계	7	14	18	40	9	2	1	91

길게 놓인 집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집들이 마당을 중심으로 모여 앉는 기법을 쓰므로 자연 동쪽으로 향하는 집들이 성안에 전체적으로 분포한다. 동남쪽을 향하는 집들은 벌원방죽을 중심으로 동문까지 몇 집이 분포하고 동헌과 향교 사이 집들도 소수 존재한다.

서남쪽을 향하는 집은 아주 소수 위의 동남향 집들과 함께 분포하는데 이것은 마주앉은 배치방식에서 자연 생긴 것일 것이다. 필경 읍성이 서북쪽은 높아서 동남쪽으로 경사졌으나 기울기는 그렇게 급하지 않으므로 건물이 남향 혹은 동남향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 가옥의 공간구성

1. 내부 공간구성

1) 제주민가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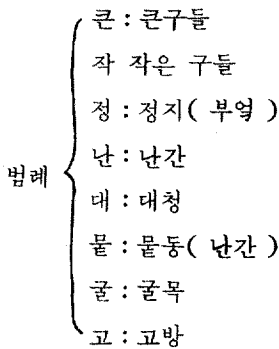
우리나라 민가의 평면구성은 안채를 중심으로 볼 때 크게 4가지 평면으로 나뉜다. 하나는 의통집이요, 둘은 양통집이며, 셋은 겹집, 넷은 곱은자 집이다.

그러나 형태적으로는 중부지방에 분포하는 곱은자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한일자집에 속한다. 이 가운데 겹집은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안으로는 삼남지방 일부를 차지하며 남해도서에는 대부분이 이런 집이다.

제주도의 민가는 한일자 모양의 접집에 속하며 남해안, 특히 남해도서 지역의 민가와 평면구성 및 배치상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살림채인 안채만 발달하고 곁채는 단순한 경영시설인데 반해서 이쪽에서는 안거리 밖거리가 모두 살림채로서 구성되며 공간구분이 남녀가 아닌 세대별 구분이란 점과 살림을 따로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이한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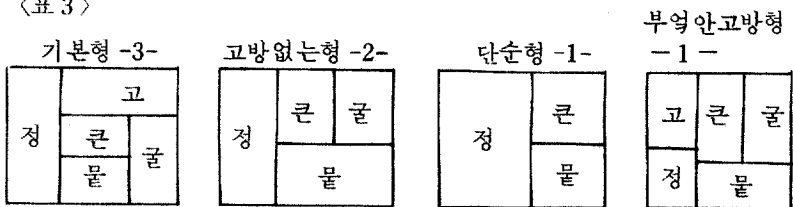
또한 건물의 규모는 육지에 비해서 대단히 큰 반면 건물의 높이는 외부에서 볼 때 비교적 낮다.

1) 안채의 평면구성



① 2칸 막살이 (표3 참조)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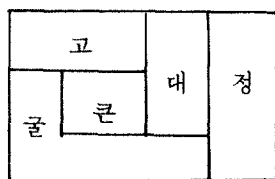


막살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칸집으로서 제주도 전역에 걸쳐 기본형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타 교방이 없는 집이라던가 집이 구들과 정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단순한 집, 또한 부엌안에 교방을 두는 집등이 있다. 그러나 성읍리에는 자기 다른 특수한 평

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곳에는 꽤 다양한 그리고 오래된 막살이 집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2칸 막살이 집은 건축연대가 오래된 게 많으며 지금은(1978년 조사당시) 7호밖에 없지만 70년대초까지만 해도 더 많은 구성비를 보였다.

② 작은방 없는 3칸집 - 5호 - (표4참조)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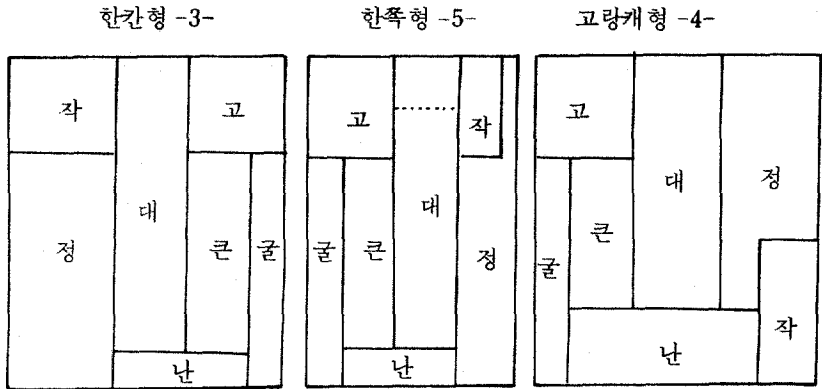
제주도 주택의 대부분이 3칸집에 해당하며 이것은 또한 정지에 작은 구들이 시설되었느냐 하는 여부를 가지고 세분한다. 이것은 집을 지을 애초부터 함께 마련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짓지 않았다가 필요하면 정지 안에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시설되기도 한다. 이런 평면구성은 일반적으로 북부보다는 남부에, 도시보다는 농촌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서 도시형 취락구성을 보이는 이곳에서는 많은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나중에 개조된 집이 많은 것으로 추정해서 전에는 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으리라 생각된다.

③ 작은방 있는 3칸집 -12호 - (표5참조)

작은방이 있는 3칸집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처음 집을 지을 때부터 작은방을 고려해 짓기 때문에 정지를 반으로 잘라서 앞 또는 뒤쪽에 작은방을 두는 방식이고, 둘째는 정지의 한쪽에 -대개는 뒤로 붙여서 -작은방을 시설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상방(대칭)쪽으로 붙인다. 그러나 바깥벽으로 붙이는 수도 있으며 그 떨어진 사이에는 마루

〈표 5〉



를 깔거나(이것을 중마루형이라고 부름) 또는 그냥 토방으로 이용하는 수도 있다. 세째는 작은방을 앞쪽구석에 두는 방식인데 이것은 부엌의 구조상 시설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바깥쪽으로 붙여 앞 부분에 둔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들로 이용되기 보다는 고랑캐로하여 일종의 수납공간으로 쓰인다. 분포숫자를 살펴보면 한칸형이 3채, 한쪽형이 5채(이 중 중마루형이 2채), 고랑캐형이 4채로서 총 12채이다. 이런 유형의 집은 다음에서 이야기하는 신형으로 거의 개조했기 때문이며 전에는 많은 수가 3칸집이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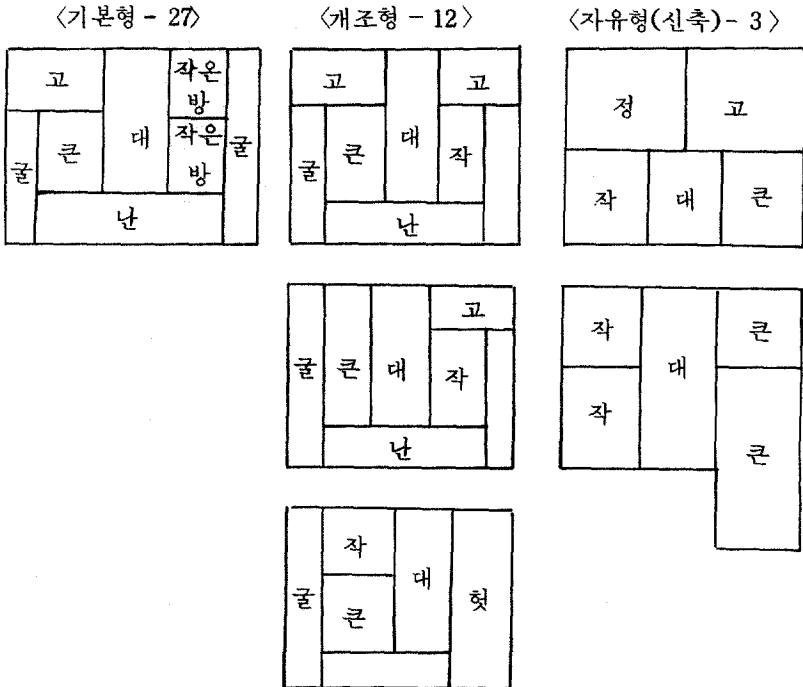
④ 3칸 신형<근세양식, 제주 3칸형으로 계층은 중농임>

(표 6 참조)

3칸 신형은 이 마을 가옥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으로서 30년대 새 생활운동 당시 부엌을 따로 짓자는 제안 때문에 따로 정짓간을 두는데 연유한다.

이것은 굴뚝없는 아궁이를 이용하는 이곳에서는 나무류의 땀감을 사용할 경우 집안이 몹시 더럽혀지기 때문에 차츰 이런 경향으로 흘러간

<표 6>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민속촌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짓고자 해도 그럴수가 없어서 자연 개조하는 방향이 압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신축된 몇 집들에도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따로 둔 것은 제주도 부엌생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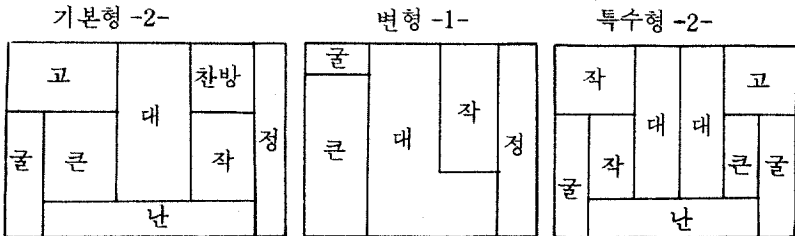
기본형은 기존 작은방 있는 3칸집의 부엌에 또 하나의 방을 들이는 정도로 개수한 것으로 개조형은 약간 더 손을 대서 고친 것이다. 고치는 방식은 작은 방이 있는 3칸집의 부엌을 고방으로 쓰고 있는 수도 있고 작은방 없는 3칸의 정지를 온통 힛간 또는 큰 구들로 개조한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39 채로서 대단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

신축한 집은 불과 3채에 지나지 않는데 평면구성의 방식은 육지방식과 유사한 구성을 보인다.

하나는 곱은자 방식으로 가운데에 대청을 두고 꺾인쪽에 큰방과 뒷방을, 반대쪽에 앞뒤로 작은방을 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통집방식으로 집을 전후로 나누어서 앞쪽에는 가운데 대청 양쪽에 구들을 두고 뒤쪽에는 정지와 고방을 배치하는 것이다. 전자는 부엌이 없는것만 다를뿐 최근에 보통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평면이요, 후자는 삼남지방에서 민중들에게 널리 애용받는 평면이다.

난간(툃마루)은 구들 앞에 놓이는데 일반적이지만 최근에 신축 또는 개축할 집일 경우에는 대청앞에만 만들고 구들은 까지 확장하여 크게 하는게 많다. 굴목은 3칸집은 개조한 집일 경우는 크지만 새로 지은 집에서는 그 역할이 줄어들어 현저히 적어진다.

⑤ 4칸집 (표 7 참조)



(주: 기본형은 작은 방이 뒤로 가는 경우도 있음)

4칸집이란 옷 3칸 안 4칸집이란 뜻으로 구조적으로는 3칸집과 같고 평면간살만이 4칸으로 한 집이다. 이것의 기본형 평면구성은 정지의 상방사이에 작은방과 찬방(찬방)이 앞뒤로 놓이는 것으로 주로 북쪽의 목안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이곳에서는 4칸집 모두를 합쳐야 9채로서 전체의 1할을 넘지 못하는 적은 수이다. 그러나 남군의 다른 농촌보다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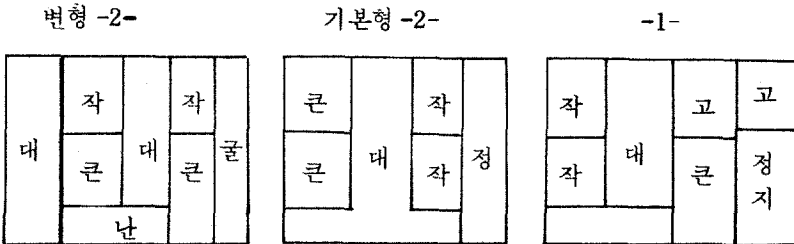
변형은 근래에 개조된 집으로서 제주 4칸집의 변형이라기 보다는 육

지의 남해안 4칸집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다만 굴묵등의 공간은 제주도 난방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수형이란 4칸 큰집이긴 하지만 당시(19C말) 특수한 용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어진 집을 말하는 것으로 그때는 민가로 쓰여 지기 보다는 공공 건물로 쓰이던 것이었다. 따라서 다만 대청이 2칸으로 유별나게 크다는 게 다르다.

⑥ 4칸 신형 (표 8 참조)

<표 8>



최근에 지어지는 4칸집은 정지없는 3칸집-대청을 중심으로 양쪽에 앞뒤로 구들을 놓는 구성-의 한쪽에 정지를 붙인 평면을 갖는다. 그런데 이 정지는 이전의 평면처럼 상방과 직접 통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것은 집안의 동선 보다는 위생을 더욱 중요시 하는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변형평면은 정지를 따로 독립시키고 이 곳에 대청을 시설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곳 정지를 앞 뒤 둘로 나누어서 뒤쪽에 부엌에서 쓰는 고방을 두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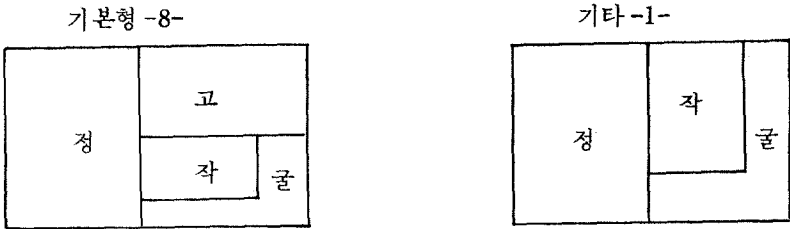
이것은 고방의 기능이 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바깥채(밖거리)의 평면구성

밖거리만 육지의 개념과 달라서 공간의 구분을 남녀로 하지 않고 세대로 한다. 따라서 이곳에는 젊은 부부의 세대 또는 늙어서 경영능력이 없는 노인세대가 산다.

① 2칸집 (표 9참조)

<표 9>



공간의 규모는 밖거리가 안거리보다 작아야 되는게 상식이므로-밖거리가 더 크면 흉한 징조라고 믿었음-당연히 2칸집이 안거리의 숫자보다 많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리 많지 않다. 평면의 구성은 제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기본형이 단연 우세하고 변형된 특수형도 몇 집 있는데 이것들은 오래된 가옥으로 추측된다.

② 3칸집 기본모양 (표 10참조)

<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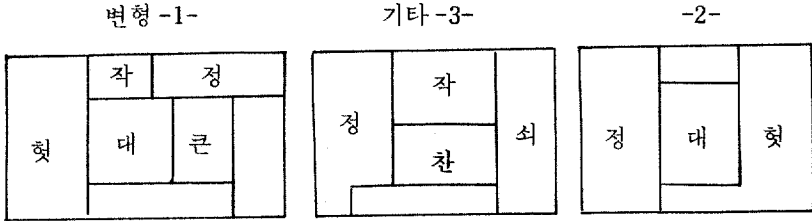
작은방 있는 3칸집	작은방 없는 3칸집
한 쪽 형 : 2채	전 형 : 6채
한 칸 형 : 3채	공간전용 : 3채

3칸 밖거리는 3칸 안거리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평면 형태이다. 이 가운데 안거리와 똑같은 평면구성을 보이는 집은 14채로서 이곳에서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부엌공간을 쇠막(외양간)으로 쓰던가 상방에 마루를 깔지 않고 물동으로 이용하던가 또는 고방에는 부엌을 시설하고 정지는 헛간으로 쓰던가 하는 것이다. 밖거리는 자주 살림채로 이용되

지 않기 때문에 경영시설물로 전용되는 것이다.

③ 3칸집 특수모양 (표 11 참조)

<표 11>



원래 밖거리란 살림채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육지의 공간개념이 들어와서 외부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랑채란 개념이 들어 갈 수 있으므로 그때 용도에 따라 제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평면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그 수는 많지 않고 대략 부자집인 경우에 많다. 3칸 변형을 보면 어쩐지 강원도 지방의 양통집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전면을 셋으로 나누어서 한쪽에 헛간을 두고 나머지는 전후로 공간을 나누는 방식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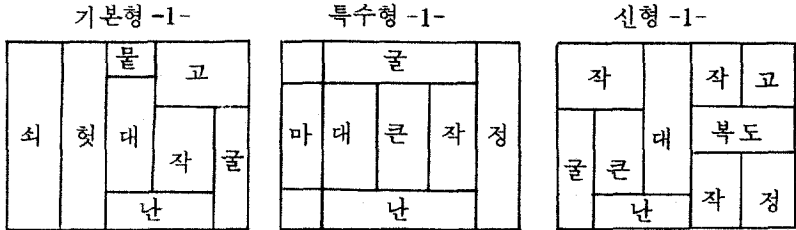
기타의 윗그림도 같은 맥락인데 보통 따로 두는 외왕(외양간)을 밖거리 안에 두는 데서 생긴 변형으로 여겨진다. 외막을 살림채 안으로 두는 것은 오래된 수법으로 아마도 이 집의 평면구성도 오래전에 발생한 것으로 믿어도 될 것이다. 기타 아래방면은 삼남지방의 외통집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육지에서는 살림방을 한쪽에 두는 것에 비해서 이곳에서는 중앙에 두는 것이 제주적 평면구성 방식의 특징으로 보여진다.

④ 4칸집 (표 12 참조)

밖거리를 4칸집으로 하는 경우는 대단히 부유한 집이 아니면 안된다. 그만큼 규모가 큰 집이기 때문이다.

기본형의 헛간은 원래 정지공간으로 쓰여지던 것으로 평범한 작은방 없는 3칸집의 공간구성에 외왕을 결달은 형태이다. 바깥채에 외양간을

<표 12>



(주 : 신형과 자유형은 퇴로 신축한 것)

살림방과 함께 배치하는 예는 욕지에서도 자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특수형은 특수한 목적에 맞도록 공간구성을 하는 것으로 전에는 관청에 부임해 온 객지의 관인을 위한 관사로 쓰여진 집이다. 따라서 다분히 욕지의 사랑채와 유사한 점을 갖는다. 일단은 방들이 곁으로 배치되지 않았으며 대청이 한쪽으로 간 점은 남해안 주택의 특징이다. 최근에 신축되는 집들은 완전 자유형으로 지역의 특성을 전혀 살피볼수 없는 집이 나오는가 하면 기존 주택의 공간구성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식이 약간 첨가되는 것이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신형은 대청쪽은 기존주택과 같은 공간구성이고 오른쪽은 가운데 복도를 두는 것이 약간 다를 뿐 공간의 구성방식은 유사하다.

3) 헛간채의 공간구성

제주에서는 집의 이름을 욕지처럼 기능에 따라 목거리 등으로 말한다.

헛간채는 보통 안채의 목거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밖거리가 목에 자리잡고 있을 경우 가끔 맞은편에 놓이기도 한다. 헛간채가 밖거리와 구분되는 점은 물론 공간구성상에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상의 문제에 있어서 전자는 2고주 7량인데 비해 이쪽은 단순히 긴보 5량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가난한 집의 경우 밖거리가 아주 단순화 된 구조에서는 구조 역시 구분하기가 힘들며 다만 공간구성이 다를 뿐이다.

① 단칸집

헛간채는 임시 가설건물로 짓는 수도 많아서 간단히 단칸집으로 마련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위치가 반드시 안마당을 중심으로 자리잡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집의 구조도 여느 헛간채와는 다르게 앞의 퇴를 갖는 2고주5량 구조이다. 공간구성에도 최왕과 헛간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수레간이 있는게 특이하다. 그러나 전에 수레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던 때에는 헛간채 안에 수레간을 두는 경우가 있다.

4) 정지간의 공간구성

정지간을 살림채에서 독립해서 따로 두는 경우는 오직 제주만이 갖는 특색으로 밥짓기와 난방용 불때기가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36년대 일인들이 새생활 운동을 벌이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그때의 운동이 주로 위생적인 면에 치중했기 때문에 부엌과 변소의 개량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 대책을 세우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외형적 형태로 진행되어서 제주에서는 정지간을 독립되게 마련하며 변소에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정지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70년대의 일이며 필자가 1971년에 찾아 갔을 때만 해도 정지간을 따로 둔 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

따라서 정지간의 칸 규모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그것보다 훨씬 작다. 칸이라는 것은 목조뼈대법에 있어서 도리로 절칠 수 있는 단위길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연히 칸의 크기란 신분적 또는 빈부의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규제되었고 단면적이 큰 재료의 채취도 규제되었으므로 거의 19C말까지 지켜졌었다. 그러나 20C 이후 신분적 제약의 탈피와 일인에 의한 무절제한 재료의 채취 공급이 가능했으므로 구조의 방식도 얇고 한칸의 길이도 크게 된다. 따라서 칸의 크기란 구조 방식상의 뜻일 뿐 공간의 규모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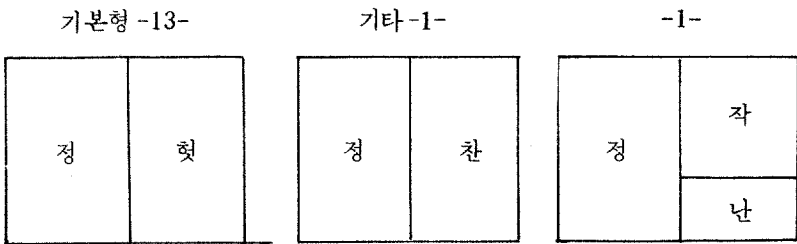
① 단칸집

단순히 정지간으로서의 단칸집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정지간이란 육지와는 달라서 식사공간까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난방과 밥짓기의 불때기가 구분되어 있고 기후가 온난해서 겨울에도 온돌방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난방방식이 아직도 봉업화로가 있어서 직접 방안에 불을 피우는 수법이 사용되어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집은 9채가 있다.

② 2칸집

정지간 역시 2칸집과 3칸집이 가장 우세하다. (표 14 참조)

<표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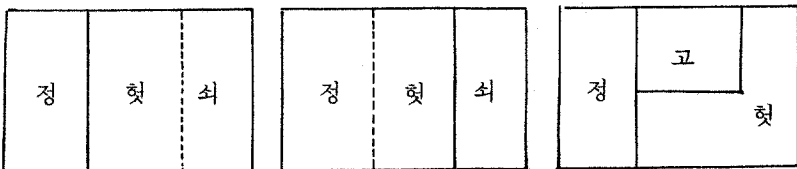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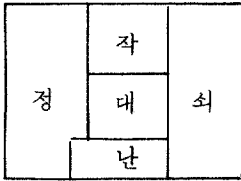
2칸집의 기본형은 정지+헛간으로서 헛간채를 이용해서 정지간을 시설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런 집이 13채에 이르므로 2칸집은 모두 이런 유형이고 나머지는 다만 예외일 뿐이다.

예외중에 하나는 2칸 가운데 1칸을 찻방(찬방) 곧 식당으로 쓰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살림방-작은 구들이 있는 2칸 막살이 평면구조로 하는 경우의 집도 있다.

③ 3칸집 - 12채 (표 15 참조)

<표 15>





3칸집 정지간으로서의 가장 많이 쓰이는 평면은 정지+헛간의 2칸 집에 최왕을 곁들인 공간으로서 8채에 이른다.

이때 정지와 헛간 사이는 막아서 고정하고 헛간과 외양간은 간막이 없이 이루어진다.

같은 공간구성이지만 약간 다른것은 2칸을 정지로 쓰고 나머지 하나를 헛간 또는 최왕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규모가 큰 집에서는 정지간도 일반 살림채와 마찬가지로 2고주5량 구조로 처리하는 수도 있다. 이때는 살림채와 비슷한 공간구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집의 공간구성은 아무래도 개인 취향적이다. 정지와 헛간으로 구성되는데 헛간 한쪽을 막아서 고방을 두는 방식, 정지와 최왕을 양끝에 두고 가운데에 작은방 대청 난간을 두는 방식으로 일종의 살림방을 두는 경우이다.

정지간은 4칸집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5) 문간채

문간채는 육지에 비해서 덜 발달해 있다. 그것은 올래라는 제주도 특유의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은 도시지역으로서 집들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문간채를 갖는 집들이 꽤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올래를 짧은 올래 방식으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문간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문에 해당하는 이문간이고 또 하나는 외대문에 해당하는 먼문간이다.

① 먼문 단칸

제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문간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규모가 작으면서 먼문에 해당하는 곳에 쓰고 다른 공간과 함께 놓일 때는 집의 규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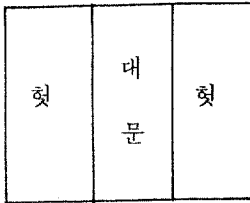
커지면서 그 중 한칸을 대문간으로 이용하며 이문간에 해당시킨다.

단칸 먼문은 올라가 없는 집에서 상징적으로 외부와 내부를 구분지어주는 시설이다. 이곳에는 한 채밖에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구조 자체가 작으면서 특이한 게 특징이다.

② 먼문 3칸 (표 16 참조)

<표 16>

-4 채 -



3칸 먼문은 3칸이라 하기에는 작은 집으로 양쪽에 반칸 크기 정도의 헛간을 둔 집이다. 3칸 먼 문간을 가진 집은 부유한 집에 속하지만 이런 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문을 갖는 것은 아니며 어떤 때는 이문간의 역할을 함께 하는 집도 있다. 문을 이중으로 둔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집에 한한다.

③ 이문 3칸집 - 3 채 -

3칸집을 이문간으로 이용하는 집에서도 일반적으로 대문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헛간을 두거나 쇠왕을 배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살림채에 떨어져 문간을 시설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곳에는 정지간이 곁들인다.

2. 가옥의 배치

제주도 가옥의 배치 방식은 대략 안마당을 중심으로 건물들이口자로 둘러서 앉는다. 이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경우가 외채형으로서 마당 뒤에 안채를 놓은 것이다. 여기에 밖거리를 곁들이면 두 그자 모양이나 그자 모양으로 배치하며 다음에 집이 증가되면 목거리라 하여튼 ㄷ자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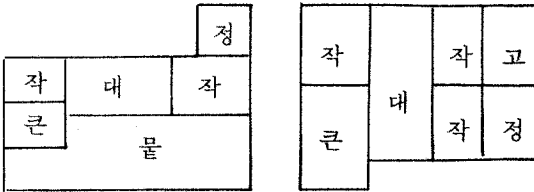
이나 卍자모양으로 놓인다.

이곳에 더욱 집이 증가하면 ㄷ자모양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림채는 이 가운데 안거리, 밖거리 둘로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경리시설물인 수가 많다. 배치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채형 (표 17 참조)

<표 17>

- 2칸 막살이 : 5 채
- 3칸집(작은방 없는) : 1 채
- 3칸신형(자유모양) : 1 채
- 4칸신형(기본모양) : 1 채
- 특수신형 : 2 채



(주 : 평면구성은 기존과 유사한 방식을 띄지만 외형은 곱은자 형태로 변화해서 육지풍을 갖는다)

안거리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집으로서 최근에 지어지는 집을 제외하고는 가난한 집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채형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평면은 2칸막살이 집이다. 나머지표에서 보는 3칸-4칸집은 신형-들은 외채형 단독주택이 많고 평면구성은 기존을 탈피하여 대단히 자유롭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지는 집도 생활이 농사를 짓는다던가 해서 덜 변화하면 과거형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생활방식이 변화한 집은 급격한 자유형을 택하는 경향을 본다.

2) 쌍채형 -31 채 -

(표 18참조)

<표 18>

- 2칸 막살이+헛간채(단칸) : 두二字 1채
- 작은 방 없는 3칸집+헛간채(단칸~3칸) : 두二字 1채
: ㄱ 자 2채
- 작은 방 있는 3칸집+헛간채(2~3칸) : 두二字 4채
: ㄱ 자 1채
- 작은 방 있는 3칸집+정지간(2칸) : ㄱ 자 1채
- 작은 방 있는 3칸집+2칸 막살이 : 두이字 1채
- 작은 방 있는 3칸집+3칸 : ㄱ 자 1채
- 3칸 신형(기본 모양)+정지간(1~3칸) : ㄱ 자 5채
: 두二字 3채
: 한一자 1채
- 3칸 신형+2칸 막살이 : ㄱ 자 2채
- 3칸 신형(변한 모양)+정지간(1~2칸) : ㄱ 자 3채
- 3칸 신형(자유모양)+정지간 : ㄱ 자 1채
- 4칸집+헛간채 : 자 유 1채
- 4칸집(특수모양)+헛간채 : ㄱ 자 1채
- 4칸집(특수모양)+3칸(특수모양) : ㄱ 자 1채
- 4칸 신형+정지간(3칸) : ㄱ 자 1채

}	한一자 자유	: 2 채
	두 二 자	: 10 채
	ㄱ 자	: 19 채
}	안거리+뚝거리	: 5 채
	안거리+정지간	: 15 채
	안거리+헛간채	: 11 채

이 가운데 안거리 최근 신축이 7 채

집의 구성 가운데 역시 가장 많은 것은 두거리집 쌍채형이다. 이 가

〈표 20〉

ㄷ자모양 : 14 채

ㅍ자모양 : 10 채

안거리+밖거리+기타 : 11 채

안거리+정지간+기타 : 16 채

세거리집에서는 밖거리를 두는 경우는 11 채로서 훨씬 증가해져 4채 ~ 5채로 구성되는 집에서는 거의 밖거리를 가진다. 밖거리가 있는 집은 두거리집을 포함해서 전체가 30집에 이르므로 마을에서 밖거리를 두는 집이 1/3에 해당된다.

요즘에는 밖거리보다는 정지간을 따로 짓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전처럼 세대별로 따로 밥을 짓지 않는 생활상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거리집에서는 거의 모두 3칸집의 안거리로 이루어지며 밖거리도 3칸집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배치방식은 ㄷ자 모양이 14 채, ㅍ자모양이 10 채로 되었는데 전자는 ㄱ자 또는 두 이자 모양의 배치를 기본으로 하는 집을 포함하며 후자는 모두 ㄱ자 모양의 배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4) 네채형 - 9 채 - (표 21 참조)

〈표 21〉

- 3칸 신형 + 2칸 막살이 + 3칸 헛간채(1~2칸) : 2 채(ㄷ자)
- 3칸 신형 + 3칸 이문간+정지간+헛간채 : 1 채(ㄷ자)
- 3칸 신형 + 3칸집+헛간채+헛간채 : 1 채(ㄷ자)
- 3칸 신형 + 3칸 신형+정지간+헛간채 : 1 채(ㄷ자)
- 3칸 신형 + 3칸집 + 2칸 막살이 + 헛간채 : 2 채(ㄷ자)
- 4칸 신형 ÷ 3칸집 + 정지간 + 수레간 : 1 채(ㄷ자)
- 5칸 자유형 + 2칸 막살이 + 2칸 막살이 + 헛간채 : 1 채(자유)

배치모양

ㄷ자모양 : 4 채

안거리+밖거리+목거리+기타 : 3채

안거리+밖거리+정지간+기타 : 3채

네거리집은 모두 살림채로서의 밖거리를 갖는다. 거기에 살림방으로서의 목거리를 갖는 경우는 3집에 지나지 않는다. 살림채가 많다는 것은 대농경영을 의미하는데 이것으로 미뤄볼 때 대농은 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네거리 역시 3칸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최근 지어진 집은 2집 밖에 없는데 이것은 안거리집을 지을 때는 한 채만을 짓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이 여러채로 나누어지는 것은 소농 경영의 한 외적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치방식은 모자모양이 4채이고 ㄷ자가 4채로서 헛간채 등은 편의에 따라 모자로 배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안마당이 경영공간으로부터 해방되어 헛간채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하나의 영농공간이 있음을 말한다.

5) 오채형 - 5채 - (표 22 참조)

<표 22>

- 작은 방 없는 3칸+4칸+헛간채+수메간+면문간 : 2채(모자)
- 3칸 변형+3칸+정지간+헛간채+

{	면문간	: 1채(자유)
	이문간	: 1채(모자)
- 4칸(특수모양)+3칸+뒀채(자유모양)+정지간+이문간 ; 1채(모자)

오거리집은 대개 안마당을 중심으로 모자로 배치되며 반드시 면문간이나 이문간을 갖는다. 이것은 부농가옥일수록 대문간을 둔다고 해석한다.

결국 집이 아무리 커져도 경영시설만이 확대될 뿐 살림채는 두거리 이상 별로 필요치 않음을 알 수 있고 최근에는 아버지와 아들세대가 육지풍이 들어서 부업을 함께 씬으로써 정지간을 따로 두는 수가 늘어 난다는 것이다.

※ 예외 - 9채 -

교 회 - 5채

상 점 - 5채

정미소 - 1채

기 타 - 2채

라. 결 론

1. 가옥평면 구성의 특징

안채는 3칸집이 많으며 안거리를 고치거나 신축하고 정지간을 따로 마련하는 집이 최근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3칸집을 고치는 방법은 작은방 있는 3칸집의 정지 공간을 구들 또는 기타 수장 공간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지는 집의 평면구성은 대단히 자유스러워진다.

밖거리가 살림채로 마련되는 집은 전체의 1/3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은 셈이다.

밖거리 역시 3칸집이 대부분이며 2칸집이 약간 존재한다.

정지간은 30년대 새생활운동에 따라 새로 발생한 공간으로서 기존 헛간채가 전용되는 경우가 많다. 규모는 2~3칸집이 많으며 간 사이는 여늬집 보다 훨씬 긴 게 특징이다. 이 마을은 목축업에 따른 소득이 예전부터 많은 곳으로서 정지간에는 외양간을 같이 두는 수가 많다. 살림채 안에 외양간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랜 주거생활의 습성이다.

헛간채는 1~3칸 규모로서 분포해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가설전불에 가까운 것이므로 집의 구조나 이용면에서 자유롭게 쓰인다.

문간은 부자집에서 이용되는 것이 보통으로 전체의 8% 정도가 소유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도 주택의 평면구성은 남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겹집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으나 역시 특유의 평면구성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제주도 주택의 평면구성은 거의 같은 유형이므로 자체의 평면구성을 가지고는 진화론적 발전과정을 그럴 수 없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대 사회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완성된 평면구성이 제주도 지방에서만은 비교적 오랫동안 변치않고 내려오면서 독특하게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가옥의 구조가 시대가 내려오면서 구조기법이 자유로워지는 사실에서 여실히 볼 수 있다.

평면구성의 가장 기본적 요소는 사회의 변천에 따른 주생활의 변화이고 다음은 계층간의 격차로서 경제적 여유에 따른다. 그러나 제주도는 계층간 부의 축적방법이 모두 소농 경영에 의하며 그 격차도 현격하지 않음으로 해서 계층간 공간구성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축재료와 취사연료 및 농작업에 따른 생활의 변천으로 말미암아 가족생활에 대한 인식변화는 자유로운 평면구성을 요구하며 꾸준히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가옥의 배치방법

집의 구성방식은 한 일자, ㄱ자, 두 이자, ㄷ자, ㄹ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가는데 ㄱ자 모양을 기본으로 하는 집이 두 이자를 기본으로 하는 집보다 약간 많다.

집의 구성은 두거리집이 월등 많으며 다음이 세거리집이다. 이것은 서부지방의 현상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외채형의 집은 대단히 가난한 집-노인이 살거나 외거노비 정도의 신분-이 대부분이므로 2칸 막살이의 공간구성이 많지만 의외로 최근에 지어지는 집들도 규모를 키우는 대신 외채로 하는 경향이 있다. 정지간을 단채로 두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노인이 따로 밥을 짓지 않게 되는 최근의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것이라 추측된다.

공간구성상으로만 볼 때 계층분화는 소농이 15/90(외채+쌍채일부), 중농이 51/90(쌍채+세채), 대농이 14/90(4~5채), 기타 91/90으

로서 중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존마을이므로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3. 마을의 공간구성

성읍리는 한라산을 朝山으로, 영주산을 鎮山으로 삼고 案山을 남산봉으로 하고 있으며 천미천이 반달형으로 휘감아 도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의 형국은 將軍大座形이라고도 하고 배형국이라고도 하고 있다. 月永도 서쪽으로 入首하고 있으나 향교만이 동향하고 있을뿐 靑아를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남향하고 있다.

이것은 공간의 배치에 있어 坐보다는 向을, 해의 방향보다는 주로 朝山 朝水의 案(경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성곽의 크기는 지름 약 150m의 귀족인 네모꼴로서 객사의 대문을 중심으로 정남북축상에 남대문과 대대문중심 기두정(장군대)을 일치시키고 동서대문도 객사대문과의 축을 함께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객사대문이 이 성곽의 중심점에 위치한다. 또한 기두정에서 남대문까지의 거리와 동서대문 사이 거리와의 비는 $\sqrt{3} : 2$ 로서 기두정에서 남대문을 잇는 중심선을 중심으로 정삼각형을 그렸을 때 그 아래 양 꼭지점은 동서대문과 남대문을 중심으로 한 거리와 일치한다.

그러나 靑아의 중심축은 남북축에 일치시키지 않고 약간 서쪽으로 비틀어서 남대문에서 객사대문에 이르러서 轉曲시켜 공문동산에 도달하도록 계획했다.

마을의 도로형식은 성곽주위에 동근도로를 배치하여 사방으로 통하도록 하고 성곽 안에는 T자모양 막힌 도로를 주도로로 이용한다. 여기에 고리형 수법의 길을 내거나 긴 울래의 막힌 길 기법의 도로를 혼용해서 작은 도로로 쓰도록 계획했다. 길은 활궁(弓)자처럼 휘도록 설계되어서 걷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공간의 변화를 감지하게 해서 시간 공간 건축을 완성시키고 있다.